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제103(2014)년 신년사중에서)

온 겨레가 평화수호투쟁에 떨쳐나서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지적하신것처럼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자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평화는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것은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평화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평화없는 통일과 번영에 대해 생각할수 없고 민족의 생존에 대해 말할수 없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나라의 평화통일에 대한 우

리 민족의 념원은 내외호전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저들의 대조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들이부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것이 미국의 본심이다.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수행에 적극 추종해나선 남조선의 반통일호전세력은 침략적인 의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

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선렬들의 애국의 녀이 스민 겨레의 삶의 터전에 외세에 의하여 황폐화되고 참혹한 전쟁의 안당으로 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수호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온 민족은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게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자주권을 목숨바쳐 고수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안락의 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이 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며 그에 준엄한 철추를 가해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거족적인 미군침수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

공화국의 선군정치는 내외호전세력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는 필승의 보검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북침을 노린 핵전쟁도발책동에 그토록 광분하면서도 감히

선불질을 못하는것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이미 열백번도 더 전쟁이 터졌을것이고 우리 민족은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입었을것이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선군정치야말로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민족의 장래를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정치라는것을 똑똑히 절감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 밑에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정 확 준



평화수호에 청년들이 앞장서겠다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갈데 대한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신년사를 받아안은 우리 청년들의 가슴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앞장설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의 분렬이 7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그 강산이 일곱 번이나 변하도록 우리 민족이 분렬의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조국통일은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과 살인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며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소한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평화없이 통일과 번영도 없다. 통일되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의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미국과 남

조선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 서겠다. 공화국의 청년학생들은 남녘의 학우들과 함께 새해벽두부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며 이 땅에 엄청난 핵재난을 몰아오려는 내외호전세력의 불장난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에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합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감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김일성시화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원 김 순일**

대결과 전쟁책동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의 역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도 이제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으므로 오히려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더욱 격화되고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은 날을 따라 가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 민족의 지향과 시대적호름에 역행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나라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실수 없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근 70년간이나 지속된 나라의 분렬과 그로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로 하여 우리 민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에 당하고 수많은 재부를 잃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번영에 이바지되어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들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북남대결에 소모되고있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삼천리조국강토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하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미국과 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민족의 안전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요인이다. 미국은 북침핵전쟁도발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남조선호전세력과 함께 핵전쟁연습을 고칠새없이 벌리면서 군사적긴장을 계속 격화시키고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할수 없다. 진정으로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내외호전세력의 책동을 폭로 단죄하고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조국통일을 겨레가 피를 흘리는

전쟁의 방법으로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자는것이 조국통일에 관한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평화통일의 지의와 시종일관한 노력으로 하여 이미 40여년전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7.4공동성명에 평화통일이 조국통일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명시되었으며 내외반통일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전쟁도발책동속에서도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고 전민적족적범위에서 조국통일기운이 고조되었다. 또 2000년에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었다. 15.6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의 채택은 북남사이의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해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인 북남공동선언들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매국세력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가로막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철통같이 굳쳐있다. 이 일심단결은 절대로 깨뜨릴수도 허물수도 없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요즘 남조선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있다고 한다.

원래 이 말은 어느 한 도서의 제목이었다. 그러던것이 현 남조선당국자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하면서부터 정치인들을 비롯하여 저저마다 이 말을 퇴반아외위 유행어처럼 번지게 되었다.

《통일은 대박》,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풀이하면 통일이 큰 리득이 된다는 소리이다.

물론 통일이 되면 북과 남을 포괄하여 민족이 번영하고 더 잘살수 있게 됨은 두말할나위없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은 겨레의 축복이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이라는 남조선집권자의 말이 아름답게 안겨오지 않고 겨레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이 말에 그 무슨 《금변사태》에 기대어 무슨 《흡수통일》의 망상이 깔려있기때문이다.

하다면 남쪽의 위정자들이 생각하는것처럼 과연 북에서 《금변사태》가 일어나고 저들이 바라는 《흡수통일》이 이루어질수 있는가하는것이다.

단언컨대 그것은 너무도 천진관만한 생각이다.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불과하다.

아마도 남쪽의 위정자들은 북의 내부가 편안치 못하고 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있는 모양인데 한참 잘못된 생각이다.

공화국은 천만군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쳐있다. 이 일심단결은 절대로 깨뜨릴수도 허물수도 없는것이다.

여나갈것이며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두산대국으로 우뚝 솟아 빛날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북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터질것처럼 생각하고있으니 일종의 정신착란증세라고밖에 볼수 없다.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밤낮으로 체체통일의 어리석은 꿈만 꾸다보니 머리가 돌아도 단단히 돈 모양인데 이제는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미국이나 남쪽의 위정자들이 그토록 바라며 기대를 걸고있는 그 무슨 《금변사태》나 《붕괴론》이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헛된 망상이라는것을.

통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통일은 대박》? 무엇이 문제인가

떨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이전에 남조선에서 《대통령》명거지를 켜던 김영삼은 한때 당장 통일이 이루어지는듯이 법적 때를었었다. 그러나 통일이 왔는가.

남조선의 이전 집권자인 리명박은 베를린장벽에서 서서 《통일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올수 있다.》고 했다. 과연 통일이 왔는가.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이 격화되고 오히려 분렬의 장벽만 더 높아졌을 뿐이다. 집권친간과 반북대결을 추구한 그 《실용정부》때 《통일을 준비》한다며 만들었던 《통일환아리》는 겨레의 조롱거리가 되고 쓸쓸한 《김치환아리》로 전락되고말았다. 그 향아리도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지 않아 지금은 거미줄이 쓸쓸을것이다.

민심을 등진 통일론의는 무의미하며 겨레에게 백해무익한것이다.

지금 이 강토의 민심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민족자신이기때문이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북남관계문제를 풀어줄수 없고 통일을 선사하지도 않는다. 자국의 침략적인 리익실현을 위해 대대로 한강토인 이 나라 허리에다 분계선표말을 박고 오늘도 전조선반도지배와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해 분주함을 피우는 미국이 과연 우리 민족의 통일에 도움을 줄듯싶는가.

바라건저 일본은 또 어떤가. 과거 삼천리강토를 피우는 군화발로 짓밟고 오늘은 또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는 일본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력대적으로 방해만 해온 위험한 침략세력이라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비극을 외

하고 이런것이 바로 통일이구나 하고 가슴몰글하게 체험하고 절감하였었다.

통일을 안아오자면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부터 개선해야 하기에 공화국은 새해 정초에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데 대해 호소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이에 남측은 어떻게 대답하고있는가.

겨레의 희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자는 주장에 새해 정초부터 미국과의 반공화국《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했고 평화수호제의를 대규모북침전쟁연습 강행발표로 우롱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할 대신 대결적인 언사와 행동

으로 동족을 심히 자극하고있는것도 남조선당국이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북남관계를 지속시키자는것이고 《흡수통일》의 해묵은 기도를 끝내 이루어보자는것이다.

그와 같은 천년이나 만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할 허황한 꿈만 꾸면서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과 대결하고 전쟁소동을 계속 피운다면 불신과 대결이 격화되고 나중에는 이 땅에서 전쟁밖에 터질것이다.

그때에 가서는 《대박》이 아니라 끔찍한 재난만이 올것이다.

화를 피하고 북과 남, 겨레모두에게 리로운 축복의 통일을 마련하자면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맹진적대결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면해서는 그 무슨 《금변사태가 능성》이니, 《흡수통일》이니 하는 따위의 어리석은 꿈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잘못된 판단은 그 자신에게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박철남